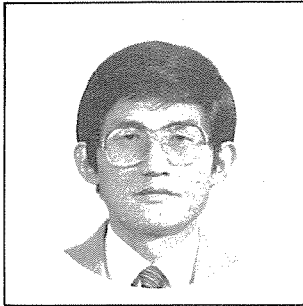


1986년 늦여름 지중해연안 스페인의 항구도시 바로셀로나에는 아직도 여름의 훈기와 햇살이 제법 따갑게 내려쬐고 있었다. 8월1일부터 7일까지 열린 제9차 국제동굴학회에는 세계각국에서 약400명의 동굴연구 및 탐험가들이 모였는데 나는 남북한을 통틀어 유일한 한국인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동굴연맹의 Trimmel사무총장의 권유로 1977년 본인이 이 연맹에 한국의 가입신청을 내어 총회에서 통과된지 거의 10년만에 참가한 터이라 나에게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지하생태계로서의 동굴과 지하수에 관

그러나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 해 주는 그의 북한소식은 듣기에는 매우 반가웠으나 두가지 씁쓸한 뒷맛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 하나는 우리와 같은 민족의 북한이 어찌다가 같은 공산권사회 사람에게까지 것처럼 엄청나게 이질적인 사회가 되었는가에 대한 놀라움이었고, 또 하나는 적어도 생물학에 관한한 기초라곤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던 평소 그곳에 대한 인상의 재 확인이었다.

필자가 이제까지 문헌상으로 알기에는 북한은 1950년말에 폴란드와 과학기술협정을 맺고 또 헝가리와의도 같은 협정을 맺어 교류를 해왔

# 스페인서 만난 한 불가리아 교수



이 병 훈  
(전북대 생물교육과 교수)

련되는 생물, 지질, 지하수등에 방대한 인구가 체계화된 조직속에 움직이고 있음을 보고 저의 기 놀랐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 만난 인물중에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온 한 교수를 잊을 수 없다. 그는 북한과의 기술협정으로 북한에 다녀온 이야기를 열심히 해 주었다. 우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생존인물의 동상, 생존인물의 어릴적 기록과 자란후의 행적을 담은 두개의 큰 박물관 이야기, 그리고 북한의 기차여행객들이 역에서 출찰구를 나갈때 "여행증명"을 내보인다는 이야기 등, 말하자면 그가 받은 "문화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듯 했다.

다. 그래서 1959~1970년의 약 10년사이에 폴랜드는 학술원산하 동물학연구소 학자들을 북한에 네차례나 파견하였고 약70,000점의 곤충류와 연체동물을 채집하여 26명의 학자이름으로 3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채집한 재료가운데 불과 7%를 연구한 속에서 무려 70여종의 신종과 200여종의 북한 미기록종을 보고한 것이다. 그 후에도 폴랜드는 1971, 1974, 1981년에도 북한에 학자들을 파견했고,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필자가 1986년에 이태리의 Siena에서 열린 국제 무시류곤충세미나에 참석했을때 만난 폴랜드의 두 학자에게서 들은 것으로 그들은 그 전 해에 북한에 다녀왔고 그 다음해에도

갈 예정이라고 말 하였다. 헝가리 역시 1970년에 북한에 원정하여 135개 지점에서 채집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이번 바로셀로나의 모임에서 불가리아도 북한에 채집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놀란것은 물론, 이제 북한은 머지않아 동구권학자들에 의해 기초 생물자원에 관한 완전한 별거승이가 되리라는 점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대체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할때 군대에 앞서 종교를 앞세운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군대와 함께 언제나 기초 과학에 관한 연구조사가 병행했다고 하는 것이 타당 할 것 같다. 찰스 다윈이 탔던 영국왕실의 비글호는 남미의 해안선을 따른 수심측정등 해양조사와 생물과 지질등 박물학적조사가 임무였다.

가까이는 일본이 중국과 한국을 침략할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밖에 강대국들의 동남아시아, 중국, 태평양제도 등에 대한 생물과 지질조사의 예는 너무나 많다. 1969년에 내가 샌프란시스코의 과학학술원에 들렀을때 그곳의 한 곤충학자는 한국과 일본의 파리에 대한 두툼한 연구논문을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 주한미군으로 근무한적이 있어 한국에서 채집 연구한 것이라고 한다. 또 불과 20여년전인 1966년에 일본의 몇 생물학자 동물탐험가는 우리나라에 와서 남한의 23개 동굴과 우물 49개를 조사해서 채집된 표본을 세계 7개국 27명의 동물분류학자에게 연구를 의뢰해서 24편의 논문을 냈는데 여기에 남한산으로 보고된 101종의 동물가운데 절반이 넘는 56종이 신종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단 3명의 학자와 1명의 동굴탐험가가 공저자로 끼어있을 뿐이었다. 단적으로 말해 당시 우리나라 동물분류학의 인구가 얼마나 빈약했고 따라서 우리의 고유한 생물자원을 밝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의 구실을 못했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필자가 공부하고 있는 생물학에서 말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그 지역에 독특한 성질과 현상을 소재와 연구주제로 나타낼 수 있는 분야는

특히 분류학과 생태학이다. 바꿔 말해 우리 고유의 환경과 생물자원으로부터 독특한 여러가지 기초데이터와 나아가서 진화 및 생태학적 유형들을 밝혀 국제학계에 내놓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분야는 주로 분류학과 생태학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특히 우리의 분류학은 역사적으로 열강들에 의해 선정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앞에서 본 것 처럼 남북한을 통틀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자각은 커녕 연구 중점투자 정책상으로 이른바 “첨단과학”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기초과학이 본래 어떤 응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순수탐구로서의 자연과학임을 생각할때, 그리고 그의 궁극적 의의는 과학을 탐구하는 과정에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자연현상의 제반유형 및 이들을 따라 흐르는 어떤 통일적 원리를 발견해 내는데 있음을 고려 할 때 우리의 “기초과학” 정책에는 전반적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우리의 근대과학발달사와 지역성에 입각하여 우선과제가 도출되어야 하며, 행여 역사상의 공백이 없는 선진국의 과학정책을 그대로 본떠 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결코 궁극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몇해전에 나는 영국의 유명한 주간 과학지 “Nature”에서 북한에서는 “오직 조국의 혁명과 건설의 완수를 위한 과학과 기술만이 최상의 연구”로 강조되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고소를 금치 못한적이 있다.

그러나 남한도 이나라 나름대로의 진정한 기초과학의 정립이 없이 응용지향적 기초과학으로만 계속 치닫고 더우기 이나라의 자연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중심으로서의 국립자연사박물관 하나없이 지낸다면 과거에 응용으로만 치닫다가 최근에야 기초과학을 강조하는 식으로 요즈음에 진정한 의미의 기초를 소홀히 한 “기초과학”만을 외치다가 언제 또 진짜 기초과학에 대한 눈을 뜨고 깨우치게 될날이 올 것인지 자못 망연하기만 하다. 아마 그때는 이미 늦고 지금의 몽매함을 한탄하게 될지도 모를 것이다.